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은총론 소고(小考)¹

박 태 현

충신대학교, 실천신학

1 들어가는 말

1880년 10월 20일, 암스테르담 새교회(De Nieuwe Kerk)에서 진행된 자유대학교 개교연설에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기독교 역사가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역주권’ 사상을 크게 외쳤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 치도 없다.”²

* 논문투고일: 2014. 7. 31

논문수정일: 2014. 9. 15

게재확정일: 2014. 9. 20

1 본고는 2014년 2월 10일, 신반포중앙교회에서 개최된 “한국성경신학회 정기논문발표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임을 밝힌다.

2 A. Kuyper, ‘Sovereiniteit in eigen kring’, (Amsterdam 1880), 35. “En geen duimbreed is er op heel het erf van ons menselijk leven, waarvan de Christus, die áller Souverein is, niet roept: “Mijn!” 카이퍼의 자유대학교 개교연설인 ‘영역주권’에 대한 소개와 최초의 전문(全文) 한글 번역은 필자의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신학지남』 2014년 봄호 (제 318호): 180-207 그리고

‘영역주권’이란 용어는 ‘신칼빈주의(neo-calvinisme)’ 운동의 선구자인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사상을 단적으로 묘사한 표현이다. 즉 ‘영역주권’은 개혁파 신학의 기초를 놓은 16세기 제네바의 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을 다시 주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절대주권 사상을 인간의 보편적 삶의 모든 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한 신학사상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신자들의 종교적 영역인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만 주장되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불신자들 가리지 않고 모든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여 살아가는 모든 영역,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예술, 가정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 영역주권 사상은 무엇보다도 일반은총³ 교리와 밀접하게 연관된다.⁴ 일반은총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구원을 얻는 특별한 총 교리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잘 드러낸 교리이다. 아마도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지금까지 카이퍼만큼 일반은총 교리를 방대하고도 심도 있게 취급한 신학자는 없

「신학지남」 2014년 가을호(제 320호): 167-193에 게재되었다.

3 ‘일반은총’이 한국교회에 최초로 소개된 것은 박윤선 목사에 의한 것으로, 박윤선은 처음에는 ‘보통은혜’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일반은총’으로 불렀다.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정암 박윤선 목사 자서전』, (서울: 영음사, 1992), 212-13. 유해무는 카이퍼의 용어, ‘Gemeene Gratie’를 ‘일반은혜’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유해무, ‘고신교회가 존속할 이유가 있는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논문집 「개혁신학과 교회」 제 22호(2009), 112. 하지만 카이퍼 자신은 비록 자신의 책 제목을 *De Gemeene Gratie* (gratia communis)라고 명명하였지만, 실제 책 속에서 논의할 때는 ‘일반은총’ (algemeene genade)으로도 빈번하게 대체하여 사용한다. A. Kuyper, *De Gemeene Gratie* (= GG), 3 Vols. (Amsterdam/Pretoria: Höveker & Wormser, 1902-1905).

4 정성구,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용인: 킹덤북스, 2010), 344. “카이퍼가 일반은총을 주장한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카이퍼는 … 특별한총을 받은 사람은 교회의 개혁은 물론이고 사회와 정치와 문화 전반에 걸쳐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일반은총론을 제창했다고 본다.”

을 것이다. 카이퍼는 1895년 9월부터 1901년 7월까지 약 6년에 걸쳐 기독교 주간지, 더 헤라우트(*De Heraut*)에서 일반은총 교리를 다루었고, 이것은 훗날 세 권의 책으로 묶여져 출판되었다(1902-1905).⁵ 물론 카이퍼가 교회역사 가운데 일반은총 교리를 가장 먼저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잘 알려진 대로 칼빈이 이미 일반은총 교리를 다루었고,⁶ 카이퍼와 동시대 개혁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도 이미 1894년 학장퇴임시 일반은총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⁷ 하지만 카이퍼가 기독교 주간지에 일반은총 교리를 해설해 나갔다는 사실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일차적 독자로 삼았다기보다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일반성도들을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그 존재성을 상실하고, 마침내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수모를 겪고 있다.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들조차 지탄하는 사회적 범죄들을 저지르다가 세상의 눈에 탄로가 나고 세상의 법정에서 서며, 세상의 신문과 여론이 교회의 허물을 책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교회 내부적으로는 ‘나만 잘 믿고 복 받으면 된다’는 기복신앙으로 만연된 신자들이 적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도피성’ 경건주의자들이 많은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신자들과 교회가 다시금 우리의 선행의 빛을 통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야 할 책무(마5:16)를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5 James D. Bratt, ed.,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Grand Rapids/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Carlisle: The Paternoster Press, 1998), 165. 카이퍼가 네덜란드 수상(1901)이 되기 전에 마무리되었고, 수상 재임 시절에 책으로 출판되었다.

6 칼빈의 일반은총 교리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다음을 참조하라. Herman Kuiper, *Calvin on Common Grace*, Academisch Proefschrift aan de Vrije Universiteit (Goes: Oosterbaan & Le Cointre, 1928).

7 Herman Bavinck, *De algemeene genade* (Kampen: G. Ph. Zalsman, 1894).

약 120여 년 전에 네덜란드의 개혁파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일반은총 교리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비전이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카이퍼의 ‘건설적인 공공신학’(Constructive public theology)은 의심할 여지없이 개혁파 일반은총 교리를 공교하게 제시한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⁸ 일반은총이란, 제임스 브라트(James D. Bratt)가 바르게 정의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 전반에 관한 공적인 책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관심을 보여주는 신학이다.⁹ 특히 일반은총론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문화를 형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원리와 지침을 제공한다. 스티브 비숍(Steve Bishop)은 카이퍼의 일반은총론이 지닌 가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카이퍼는 ‘경건주의적 수면’에 잠든 당대의 기독교인들을 일깨우기를 추구하였고, 카이퍼의 사역과 저술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온전하게 보여주고 많은 사람을 사로잡았던 이원론적 몽상을 타파하는데 도움을 준다.¹⁰

따라서 본 소고는 카이퍼의 일반은총 교리의 핵심사항만을 요약, 정리하고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¹¹

8 Bratt, ed.,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165. 목차 가운데 일반은총 항목에 ‘카이퍼의 건설적 신학의 경첩’(The hinge of Kuyper’s constructive theology)이라는 부제(副題)가 붙어있다. cf. 16.

9 Bratt, ed.,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165.

10 Steve Bishop, ‘On Kuyper: An Introduction’, in *On Kuyper: A Collection of Readings on the Life, Work & Legacy of Abraham Kuyper(=On Kuyper)* eds. Steve Bishop and John H. Kok, (Dordt College Press, 2013), 1.

11 카이퍼의 『일반은총론』의 비평적 평가와 현대적 의미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진하는 것은 차후로 미루기로 한다. 그리고 칼빈, 바빙크, 스

2 카이퍼의 『일반은총론』

2.1 일반은총론의 저술 배경과 목적

우리는 먼저 카이퍼가 왜 일반은총론을 저술했는지 그 배경과 목적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카이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일반은총 교리가 신자들의 삶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고 여겼다.

2.1.1 신학적 측면에서

카이퍼는 자신의 일반은총론 서문에서 기독교의 일반은총 교리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는 것만큼 개혁파 원리에 손해를 크게 끼치는 것은 없다고 선언하였다.¹² 비록 개혁파 신학자들이 칼빈의 발자취를 따라 매우 중요한 일반은총 교리에 관심을 가졌을지라도, 독립적인 교리로서 한 장을 할애하여 취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¹³ 바빙크가 1894년에 ‘일반은총’(De Algemeene Genade)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퇴임 연설을 전하였을지라도, 이 교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서로 연계하여 완전하게 취급된 적은

킬더, 반 틸, 존 머레이 등 많은 신학자들 역시 일반은총 교리를 다루고 있음을 지적해 둔다. 카이퍼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글은 생략하되, 대표적인 전기로서 다음을 참조하라. L. Praamsma, *Let Christ be King: Reflections on the Life and Times of Abraham Kuyper*, 이상웅·김상래 공역,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서울: 복 있는 사람, 2011). Frank Vanden Berg, *Abraham Kuyper*, 김기찬 역, 『수상이 된 목사 아브라함 카이퍼』(서울: 나비, 1991).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Grand Rapids/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3).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His World and Work’, in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ed. James D. Bratt, 4-5. Jan de Bruijn, *Abraham Kuyper: A Pictorial Biography*, trans. Dagmare Houniet, (Grand Rapid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4). 정성구,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용인: 킹덤북스, 2010).

12 Kuyper, ‘Voorwoord’, in *GG*, Vol. I.

13 Kuyper, *GG*, I, 5. 칼빈은 『기독교강요』, II.3.3에서 일반은총을 선명하게 취급한다.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¹⁴ 한 마디로 말하면, 카이퍼의 눈에 일반은총 교리의 신학적 발전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일반은총 교리를 온전하게 취급하고자 한 것이다.

2.1.2. 신자의 삶의 실천적 측면에서

카이퍼가 일반은총 교리를 취급한 목적은 이러한 신학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실천적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 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을 그는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한편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두 번째 주일 5번 문답)이 가르치는 바처럼,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¹⁵과 다른 한편으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신자들을 능가하여 선행을 행하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하고자 일반은총 교리를 취급한 것이다.

비열함, 부정직,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들에 대해 불신자들을 포함한 공공의 양심이 저항하지 않는가? 그리고 때때로 신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불신자들이 실천하는 인류애와 자비로운 행위들이 많지 않는가? 바로의 딸이 나일 강에서 어린 아기 모세를 구원할 때, 악을 행한 것인가 아니면 선을 행한 것인가?¹⁶

이와 같은 사실은 흔히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만든다. 타락한 인간은 그 어떤 선(善)도 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심하게 타락하지는 않

14 Kuyper, *GG*, I, 5. cf. 바빙크의 일반은총론에 대해 살펴보려면,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제 1권의 ‘편역자 서문’ 가운데 ‘일반은혜’를 보라. 38-39.

15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3), 15.

16 Kuyper, *GG*, I, 248-49.

있다고 생각하는 알미니안 이단이나, 혹은 이 모든 좋은 것을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재세레파처럼 잘못된 길로 헤매는 것이다.¹⁷ 하지만 개혁파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았다.

이 두 갈래 길에서 개혁파 신앙고백은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를 거부하였다. 교회 밖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 있는 좋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 우리는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 이 선한 것은 존재했고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죄된 본성이 지닌 완전한 부패에 대한 어떤 것도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얼핏 보기에 그럴 듯한 모순의 해결책은 교회 밖, 이방인들 가운데, 또한 세상 한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역사하는데, 그 은혜는 영원하거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죄 가운데 숨은 부패를 억제하는 은혜라는 사실에 놓여있다.¹⁸

개혁신학자 반 틸(C. Van Til, 1895-1987) 역시 개혁파의 일반은총 교리가 지닌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일반은총론을 통해 개혁신학자들은 한 편으로 기독교의 특유하고도 절대적인 성격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는데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죄의 심각성과 동시에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펠라기안주의와 경진주의 공격을 방어하였다.¹⁹

요약하자면, 일반은총 교리는 인간의 철학적 고안품이 아니라, 죄의 치

17 Kuyper, *GG*, I, 7.

18 Kuyper, *GG*, I, 7. cf. Kuyper, *GG*, I, 248-49.

19 Cornelius Van Til, 'Abraham Kuyper's Doctrine of Common Grace', in Cornelius Van Til, *Common Grace and the Gospel*,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3), 14.

명적 성격에 대한 개혁파 신앙고백에서 비롯되었으며, 동시에 이 개혁파 신앙고백이, 현실적으로 교회 밖 세상 불신자들의 삶 가운데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존재하기에, 모순처럼 보인다는 명확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게다가 카이퍼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선(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지적한다. “인류 역사는 … 한편으로 엄청난 ‘죄의 법’이 다스리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한 죄의 힘을 깨뜨리는 ‘은혜의 법’도 다스린다는 것을 증명한다.”²⁰

2.2 일반은총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일반은총론은 카이퍼가 약 6년에 걸쳐 기독교 주간지 ‘더 헤라우트’(De Heraut)에 연재한 것을 책의 형태로 출판한 것이다. 전체 약 1,750여 페이지의 분량으로 3권으로 되어 있으며, 1902-1905년에 출판되었다. 제 1권은 일반은총의 역사적인 부분을 다룬 것으로, 일반은총의 기원과 작용을 객관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제 2권은 일반은총의 신학적 사유에 초점을 맞추어 과거에 내용적으로 지시된 것이 무엇인지 교리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3권은 일반은총의 실천적인 부분으로, 이 일반은총 교리가 교회와 국가, 가정, 자녀양육, 사회 등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취급하고 있다.

2.2.1 하나님의 주권사상

카이퍼는 모든 개혁파 신자들의 뿌리 깊은 확신인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서 일반은총 교리가 직접적으로 파생된다고 확신한다.

20 Kuyper, *GG*, I, 249.

만일 하나님이 주권자라면, 그의 주권은 모든 삶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교회당 울타리나 그리스도인들의 영역에 갇혀 있을 수 없다. 비기독교 세계는 사단이나, 타락한 인간, 우연에게 넘겨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례 받지 아니한 세계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을 통치하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상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으로부터 단순히 물러날 수 없다. 만일 신자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신다면, 신자 역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손으로 쟁기를 잡고 일해야만 하고, 또한 거기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²¹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사상은 신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부름 받은 사역에 힘써 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요청하는 것이다(마5:16).

2.2.2 일반은총: 하나님의 성품인가 하나님의 행위인가?

카이퍼는 일반은총이 하나님의 성품들 가운데 ‘인내’(*lankmoedigheid*)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은 모든 죄에 대하여 단지 부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전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 주 하나님은 단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거룩하심 가운데 동시에 인내하시며, 전능자의 신적 인내가 죄를 일시적으로 참아내는 이 ‘인내’하심으로부터 ‘일반은총’이 태어났다.”²²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으심이 없이는 모든 은혜, 즉 구원하는 은혜나 일반은혜가 시작될 수 없다.

모든 은혜의 발현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참으심이다.

21 Kuyper, ‘Voorwoord’, in *GG*, Vol. I.

22 Kuyper, *GG*, I, 6.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참으심은 그가 진노를 연기하시고, 자신의 공의의 복수를 한 동안 실행하지 않으심으로, 이를 통해 은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런 참으심 없이는 구원하는 은총이나 일반은총은 생각할 수 없다.²³

하지만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되, 일반은총은 그 진노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진노의 실행을 완화시키고 진정시킬 뿐이다.²⁴

카이퍼는 일반은총 교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인 동시에 하나님의 행위라고 묘사한다. 일반은총은 전적으로 죄의 억제에 근거를 둔다.²⁵ 일반은총은 “죽음의 독이 활동하는 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억제한다.”²⁶ 따라서 일반은총의 고유한 본질은 죄와 그 결과들을 억제하는 것이다.²⁷ 대부분의 경우, 카이퍼는 일반은총에 대해 하나님의 행위, 특히 보존하는 행위로 묘사한다. “‘일반은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와 연관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다. … 이 세상 전체와 우리 인류 전체에 미치는 하나님의 행위와 연관된다: 당연히 구원하는 의미가 아니라, 보존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행위와 연관된다.”²⁸

2.2.3 일반은총의 구별: 소극적-적극적 활동

카이퍼에 의하면, 일반은총은 다시금 죄의 발생을 방지하는 소극적

23 Kuyper, *GG*, I, 239.

24 Kuyper, *GG*, II, 416.

25 Kuyper, *GG*, I, 248.

26 Kuyper, *GG*, I, 239.

27 Kuyper, *GG*, I, 242.

28 Kuyper, *GG*, I, 90.

(negatieve) 활동과 죄에 반대하여 사람의 자연적 능력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적극적(positieve) 활동으로 구분된다.²⁹ 일반은총의 소극적-적극적 활동의 구별은 다시금 상시적(constant)-진행적(progressief)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일반은총의 상시적 활동은 “자연의 저주와 마음의 죄를 방지하고 억제한다. 이에 반하여 진행적 활동은 다른 활동으로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발전 가운데 인간의 삶을 고통에 대항하여 지속적으로 더 넘치도록 무장시키고, 내적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발전시킨다.”³⁰

이 두 가지 활동 사이에는 아주 중대한 성격상의 차이가 있다. 일반은총의 상시적 활동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제하고 활동하시는 반면, 일반은총의 진행적 활동(progressieve werking)에 있어서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와 동역자로서 등장한다. 기나긴 역사의 길을 따라 발전, 진전, 그리고 문화를 얻게 된 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씨름, 인간의 발명, 인간의 협력, 그리고 인간의 천재성의 결과”로서 획득한 것이다.³¹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며, 하나님 없이는 천분의 일 밀리미터도 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직접적으로 곧바로 일하지 않으시며, 결코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사람 안에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2.2.4 일반은총 활동의 영역

카이퍼는 일반은총의 활동이 미치는 영역으로 “한편으로 우리 인간 삶의 도덕적-종교적 영역, 다른 한편으로 지성적-예술적 영역으로” 구분한다.³²

29 Kuyper, *GG*, II, 242. cf. 카이퍼는 『신학백과』에서 일반은총의 적극적인 발전과 소극적인 발전 사이의 반제(antithese)를 언급한다. A. Kuyper, *Encyclopaedie der Heilige Godgeleerdheid*, 3 vols. (Amsterdam: J. A. Wormser, 1894), II, 253.

30 Kuyper, *GG*, II, 602.

31 Kuyper, *GG*, II, 602.

일반은총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가장 강하고 가장 원리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타락한 죄인의 도덕적-종교적 생명이 전적으로 가라앉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 동시에 이 활동이 가장 풍성하게 드러나는 곳은 지성적 삶과 예술적 삶이 만개하는데 있다. 일반은총이 가장 약하게 드러나는 곳은 지성적 삶 혹은 예술적 삶이 풍성하지만, 도덕적-종교적 삶이 손상을 당하는데 있다.³³

일반은총이 시행되는 영역의 이러한 구분은 때때로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성적이고 예술적인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2.3 일반은총 교리의 해설 근거들

2.3.1 성경

카이퍼는 일반은총 교리가 다름 아닌 성경에서 나왔음을 확신하고, 창세기 9장의 노아언약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한다.

일반은총 교리의 확실한 역사적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와 맺은 언약에 기초한다. 많은 결정적 의미를 지닌 이 사건은 후기에 충분히 관심을 받지 못했다. 사람들은 너무도 빨리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이를 통해 중대한 의미를 지닌 노아언약이 처음에는 뒷전으로 밀려나더니, 그 후에는 거의 잊혀졌다.³⁴

32 Kuyper, *GG*, I, 423.

33 Kuyper, *GG*, I, 424.

34 Kuyper, *GG*, I, 7.

하지만 노아언약에서 그 모습을 갖춘 일반은총은 이미 낙원에서 시작 된 것이었다. “그(일반은총) 기원은 마침내 방주에 이르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기초하고 있으며, 일반은총의 고유한 성격과 참된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낙원으로 돌아가야 한다.”³⁵ 하나님의 명령,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2:17)는 말씀이 아담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그 날에 죽지 않았다. 아담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오래 살았다. 이런 사실은 한 가지 의문을 제기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화된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이 힘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담에게 선고된 죽음이 연기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은총이며,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³⁶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협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순전히 예고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너에게 죄를 가져다 줄 것이며, 그 죄는 필연적인 결과로 죽음, 즉 각적인 죽음, 마지막까지 진행되는 죽음을 부를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암묵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만일 너의 하나님, 내가 나의 공홀 가운데 지속되는 죄의 결과들을 억제하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것이다.’³⁷

카이퍼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 사건 속에서도 일반은총이 비치고 있음을 지적한다. 먼저는 뱀과 하와, 그리고 아담을 향해 언급된 선고 속

35 Kuyper, *GG*, I, 90.

36 Kuyper, *GG*, I, 90ff., 224ff.

37 Kuyper, *GG*, I, 209.

에서도 은혜가 나타난다. 뱀에 대한 선고 속에는 특별은총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선고 속에는 일반은총이 나타난다.³⁸ 또한 범죄한 인간을 찾으시는 사실 역시 일반은총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죄가 곧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억제되지 않고 완전히 임했다면, 이런 찾아오심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단을 결코 찾아오시지 않고, 항상 사단을 쫓아내시고 대적자로 삼으신다.”³⁹

로마서 2:14, 15절에 대하여 카이퍼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있는 자신의 원초적인 영적 사역을 타락한 죄인으로부터 완전히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어느 정도 신적인 필사본을 남겨 두셨다.”⁴⁰

2.3.2 신앙고백서

카이퍼는 자신의 일반은총 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성경 외에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언급한다⁴¹: 벨직신앙고백서 14, 15조, 도르트신조 III/IV, 4와 V, 4-8,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서 114 문답.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퍼는 다우마(J. Douma)가 지적하듯이 신앙고백서를 단지 드물게 언급할 뿐이며, 위에 언급된 신앙고백서를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다.⁴²

38 Kuyper, *GG*, I, 229.

39 Kuyper, *GG*, I, 245.

40 Kuyper, *GG*, II, 13.

41 Kuyper, *GG*, II, 11-12.

42 J. Douma, *Algemene Genade: Uiteenzetting, vergelijking en beoordeling van de opvattingen van A. Kuyper, K. Schilder en Joh. Calvijn over 'algemene genade' (= Algemene Genade)*, (Goes: Oosterbaan & Le Cointre, 1966), 30.

2.4 두 가지 은총: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카이퍼는 『일반은총』 제 1권 30장에 이르러 타락 후 인간 세계에 이루어진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고 밝힌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종류로 구별된다.

첫째, 마지막에 죄를 제거하고 죄의 결과들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구원하는 은혜, 둘째, 죄의 작용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은혜. 첫 번째 구원하는 은혜는 일의 성격상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제한된다. 두 번째 은혜는 일반적인 것으로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확장된다.⁴³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은혜는 내용, 범위, 목적, 그리고 근거에 있어서 구별된다.⁴⁴

2.4.1. 내용: 내용에 있어서 일반은총은 특별은총과 다른 내용을 갖는다. 특별은총은 죄를 제거하고 죄의 결과들을 완전히 소멸하는 반면, 일반은총은 단지 죄의 작용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별은총이 시작된 곳에는 오로지 은혜만이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진노는 전적으로 물러나, 그 어떤 하나님의 자녀도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으며, 단지 아들로서 징계를 받는다. 하지만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고, 일반은총은 그 진노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진노의 실행을 완화시키고 진정시킨다.⁴⁵

43 Kuyper, *GG*, I, 218.

44 Cf. Jacob Klapwijk, 'Antithese and Common Grace', in *On Kuyper* eds. Steve Bishop and John H. Kok, 289-91.

또한 특별은총은 단지 죄의 작용을 억제하는 일반은총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기도 한다.⁴⁶

2.4.2. 범위: 또한 일반은총은 특별은총의 범위보다 더 넓다. 죄를 제거하는 특별은총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제한되는 반면, 죄를 억제하는 일반은총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살아가는 영역에까지 확장된다. 다시 말하면, 택자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즉 우리 인류를 위해 타락 후에 즉각적으로 도입된 일반은총의 범위는 특별은총의 범위보다 더 넓은 것이다.⁴⁷

2.4.3. 목적: 일반은총은 그 독립적인 고유한 목적에 있어서도 특별은총과 구별된다. “특별은총은 적극적인 목적을 지닌다: 죄로 인해 죽음에 처한 사람 안에 새롭고 더 고상한 삶을 일깨우고 보존하고 완성한다. 이와 반대로 일반은총은 단지 소극적인 목적만을 갖는데, 죄악의 독이 완전히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⁴⁸ 특별은총은 “하늘나라의 실현”을 고유한 목적으로 삼는 반면, 일반은총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시 이 세상 가운데 심겨둔 것의 실현”으로서 “택자들의 구원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이다. 일반은총을 통해 “하나님은 우주의 본디 예술가와 건축가로서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한다.”⁴⁹ 일반은총의 독립적 목적은 “우리 인류의 짝 속에 심겨진 모든 것이 하나님 이름의 영광과 찬양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다.”⁵⁰

45 Kuyper, *GG*, II, 416.

46 Kuyper, *GG*, II, 610.

47 Kuyper, *GG*, I, 243.

48 Kuyper, *GG*, II, 239.

49 Kuyper, *GG*, II, 635.

하지만 더 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은 구별되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반은총 가운데서도 스스로 자기 이름의 영광을 가장 많이 추구하신다. 이 일반은총 자체에는 다른 모든 동기와 상관없이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와 자기 자신의 영광의 비춤이 이미 놓여있다.”⁵¹ 그러므로 단지 특별은총만 아니라 일반은총 가운데서도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사단의 방해를 극복하기에 더욱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된다.

사단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악한 의도는 단지 몇몇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목적은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커서 건물의 첫 번째 기초가 거의 땅 위에 올라서기도 전에 전체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위대한 건축가와 예술가가 자기 사역의 실패를 보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일반은총이 개입된다. 하나님이 착수한 건물은 저지되지 않고 무산되지 않는다. ... 하나님은 사단의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배내옷에 놓여있던 자신의 고유한 놀라운 사역을 시행하셨다.⁵²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구원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대하여 자신의 신적 영광을 드러내고 유지하는 것이 구원 사역의 주된 목적으로서 전면에서 부각된다.⁵³

50 Kuyper, *GG*, II, 622.

51 Kuyper, *GG*, II, 116.

52 Kuyper, *GG*, II, 117.

53 Kuyper, *GG*, I, 242.

동시에 주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일반은총'을 택자들을 위한 자신의 구원계획에도 쓰임 받게 하셨다. 하지만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택자들의 구원은 단지 연결고리일 뿐이며, 모든 사슬이 견고하게 묶인 마지막 고리는 언제나 다시금 그리고 언제나 사실상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다.⁵⁴

그러므로 다우마(J. Douma)는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지적한다. “순서는 뒤바뀔 수 없다. 첫 번째는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난 후 또한 (사람에 대한) 그의 선하심에 관하여 언급될 수 있다.”⁵⁵

2.4.4. 근거: 마지막으로 일반은총은 그 근거에 있어서 특별은총과 구별된다. 구원 역사와 교회, 즉 특별은총의 영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는데, 그리스도는 구원의 중재자로 나타난다. 다른 한편, 일반 세상의 역사와 문화, 즉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펼쳐진 창조질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제 2의 신성 안에 기초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창조의 중재자이다. 하지만 구원사역과 창조사역 모두 그리스도에게 근거를 둔다는 점에서는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차이는 있을 수 없다.⁵⁶

2.5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의 관계와 상호작용

카이퍼가 일반은총 교리에서 다루려고 하는 중대한 문제는 이 두 가지 은혜가 서로 연관되는지, 그리고 상호 연관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

54 Kuyper, *GG*, II, 118.

55 Douma, *Algemene Genade*, 40.

56 Kuyper, *GG*, II, 631, 642.

는지에 관한 것이다. 카이퍼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은혜는 서로 연관되는데, 즉 일반은총 없이는 택자들이 태어나 생명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부터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게다가 만일 인류의 첫 조상에게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이 일시적으로 연기되어 그 후손들이 태어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 외에 끔찍한 죄가 억제되지 않고 발생되었다면, 사람은 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카이퍼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특별은총은 일반은총을 전제한다. 일반은총 없이 특별은총은 그 기능을 할 수 없다.”⁵⁷

그렇다면 일반은총은 오로지 택자들의 구원만 가능하도록 봉사하는 역할로 치부되어야 하는가? 카이퍼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 사이의 연관성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⁸ 이것이 바로 미묘한 점으로서 카이퍼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개혁과 고백을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개혁과 고백의 불완전한 모방을 취급하는지 언제든지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타락 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뚜렷하게 구별된 두 영역”(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영역)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부정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⁵⁹ 비록 이 두 영역이 지속적으로 구별되어야 하지만,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일시적 삶과 영원한 삶,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의 우리의 삶, 종교와 시민의 삶, 교회와 국가,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⁶⁰

카이퍼에게 있어서 일반은총 없이는 특별은총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

57 Kuyper, *GG*, I, 219.

58 Kuyper, *GG*, I, 219. cf. Kuyper, *GG*, I, 241. 카이퍼는 결국 피조물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59 Kuyper, *GG*, II, 635.

60 Kuyper, *GG*, II, 634.

별은총 없이는 일반은총이 꽃을 피우지 못한다.

일반은총이 특별은총의 요인을 상실한 곳 어디서나 일반은총은 시 들고 단지 불완전한 결과를 낳을 뿐이다. 반대로 특별은총의 요인이 일반은총에 영향을 미치는 곳 어디서나 그리고 더 강력하고 더 친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따라, 일반은총은 완전하고도 풍성하게 발전한다.⁶¹

카이퍼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적 개혁주의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한다.

모든 것은, 또한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의 몸이 주된 요소이며,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 역사의 중심점을 형성한다고 확고하게 붙드는 개혁파 고백은 역사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훨씬 뛰어넘는 역사관의 기초를 제공한다.⁶²

이런 점에서 카이퍼는 그리스도 중심적 질서가 더욱 순수하고 올바른 고백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단지 그리스도의 파생물로서 그의 몸과 그의 교회를 위한 것이 뒤따른다. 따라서 당신이 먼저, 그리고 그 후에 교회,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의 결과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서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그를 통해 만물이 존재하고, 그를 통해 우리가 존재한다.⁶³

61 Kuyper, *GG*, II, 660.

62 Kuyper, *GG*, I, 220.

63 Kuyper, *GG*, I, 220.

카이퍼는 일반은총의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자연과 은혜의 상호관계를 통해 설명한다.⁶⁴ 그는 그리스도께서 단지 영혼의 구원에만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 내적인 영성과 전반적인 삶 사이의 균열을 보이는 것은 재세례파적 입장이라고 지적한다.⁶⁵ 카이퍼는 재세례파의 이원론적 사고 방식을 경계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일반은총이 지닌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친다. 즉 은혜와 자연은 서로 기름과 물처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 은혜는 자연과 불가분의 연관을 가지며, 은혜와 자연은 하나에 속한 것이며, 만일 당신이 은혜의 수염뿌리가 어떻게 자연적 생명의 갈라진 곳과 접합된 곳 어디에나 파고드는지 추적하지 않는다면, 은혜의 풍성함을 볼 수 없다.”⁶⁶

카이퍼는 일반은총과 특별은총과의 관계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자연’과 ‘은혜’의 대조보다는 개혁파 원리를 보여주는 ‘창조’와 ‘재창조’(Schepping en Herschepping)의 대조를 선호한다.

... 일반은총은 [타락후 시작된] 저주의 치명적인 결과들을 방지하고, 본래의 창조로부터 나온 것이 비록 저지될지라도, 계속 존속 가능하며 존속되게 하였다. 그와 정반대 쪽에 있는 것은 재창조로부터 나온 것이며, 이것들 모두는 함께 특별은총의 영역을 결정짓는다.⁶⁷

2.6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활동 영역: 네 가지 영역

카이퍼는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이 활동하는 영역을 넷으로 구분한다.⁶⁸

64 Kuyper, *GG*, I, 221-24.

65 Kuyper, *GG*, I, 223.

66 Kuyper, *GG*, I, 224.

67 Kuyper, *GG*, II, 610.

(1) 그 어떤 특별은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은총의 영역으로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요일5:19). (2) 특별은총과 전적으로 배제되어 등장한 제도적 교회의 영역으로서 직분자들이 갖추어진 교회. (3) 특별은총이라는 등잔불의 조명을 받은 일반은총의 영역으로서, 신자들의 빛으로 조명 받은 일부 세상. (4) 일반은총의 정보들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인 특별은총의 영역으로서, 가루 서 말이 복음의 누룩으로 전부 부풀게 된 것이다(마13:33). 카이퍼는 궁극적으로 네 번째 영역에서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만남을 발견하며 완성된 것으로 여긴다.⁶⁹

3 나가는 말

19세기 말 아브라함 카이퍼는 교회 역사 가운데 신학적으로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던 일반은총 교리를 광범하게 취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신자들의 삶 속에서 ‘모순’처럼 발견되는, ‘신자들을 능가하는 불신자들의 덕행’의 문제를 일반은총 교리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사상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특히 영역주권 사상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표현되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성경적 사상으로 가득한 것이었다.

카이퍼의 일반은총론이 가지는 장점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확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단지 교회 담장 안에 있는 신자들의 예배와 삶만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즉 피조

68 Kuyper, *GG*, II, 676-77.

69 Kuyper, *GG*, II, 627-41. 84장(두 삶의 영역의 혼합)과 85장(영역과 영역의 접촉)을 참조하라.

물 전체에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둘째, 성도들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일반은총을 통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일이다.

필자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이 시대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은총 교리는 우리에게 일그러진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여긴다.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도록 하여 소극적 의미의 교회만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의 현장인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가르치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카이퍼에 의해 전개된 일반은총 교리, 성경에 확고하게 기초한 일반은총 교리는 사회 각계 각층에 흩어져 소속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크게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라고 촉구하기에 충분한 성경의 교리이며 개혁파 교회의 영광스런 교리이다.

참고문헌

-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3.
- 박태현.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1).” 『신학지남』 2014년 봄호 (제318호): 180-207.
- _____.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2).” 『신학지남』 2014년 가을호 (제320호): 167-193.
-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정암 박윤선 목사 자서전』. 서울: 영음사, 1992.
- 유해무. “고신교회가 존속할 이유가 있는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논문집 『개혁신학과 교회』 제22호 (2009): 85-129.
- 정성구.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용인: 킹덤북스, 2010.
- Bavinck, Herman. *De algemeene genade*. Kampen: G. Ph. Zalsman, 1894.
- _____. *Gereformeerde Dogmatiek*.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제1권, ‘편역자 서문’, 17-53.
- Bishop, Steve. ‘On Kuyper: An Introduction’, In *On Kuyper: A Collection of Readings on the Life, Work & Legacy of Abraham Kuyper*, edited by Steve Bishop and John H. Kok. Dordt College Press, 2013: 1-5.
- Bratt, James D.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Grand Rapids/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3.
- _____. ‘Abraham Kuyper: His World and Work’, In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edited by James D. Bratt. Grand Rapids/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Carlisle: The Paternoster Press, 1998: 1-16.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흡 외 공역, 『기독교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 De Bruijn, Jan. *Abraham Kuyper: A Pictorial Biography*. Translated by Dagmare Houniet. Grand Rapid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4.
- Douma, J. *Algemene Genade: Uiteenzetting, vergelijking en beoordeling van de opvattingen van A. Kuyper, K. Schilder en Joh. Calvijn over ‘algemene genade’*. Goes: Oosterbaan & Le Cointre, 1966.
- Klapwijk, Jacob. ‘Antithese and Common Grace’, In *On Kuyper: A Collection of Readings on the Life, Work & Legacy of Abraham Kuyper*, edited by Steve Bishop and John H. Kok. Dordt College Press, 2013: 287-302.
- Kuiper, Herman. *Calvin on Common Grace*, Academisch Proefschrift aan de Vrije Universiteit.

Goes: Oosterbaan & Le Cointre, 1928.

Kuyper, A.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Amsterdam, 1880.

_____. *Encyclopaedie der Heilige Godgeleerdheid*, 3 vols. Amsterdam: J. A. Wormser, 1894.

_____. *De Gemeene Gratie*, 3 Vols. Amsterdam/Pretoria: Höveker & Wormser, 1902-1905.

Praamsma, L. *Let Christ be King: Reflections on the Life and Times of Abraham Kuyper*. 이상웅 · 김상래 역.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서울: 복 있는 사람, 2011.

Van Til, Cornelius. *Common Grace and the Gospel*.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3.

Vanden Berg, Frank. *Abraham Kuyper*. 김기찬 역. 『수상이 된 목사 아브라함 카이퍼』. 서울: 나비, 1991.

국문초록

‘신칼빈주의(neo-calvinisme)’ 운동의 선구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1880년 자유대학교 개교 연설에서 ‘영역주권’이란 크게 외쳤다. ‘영역주권’은 개혁파 신학의 기초를 놓은 16세기 제네바의 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을 다시 주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절대주권 사상을 인간의 보편적 삶의 모든 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한 신학사상이다. 이 영역주권 사상은 무엇보다도 일반은총 교리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일반은총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구원을 얻는 특별은총 교리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잘 드러낸 교리이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과 존재성을 상실하고, 마침내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수모를 겪고 있다. 동시에 교회 내부적으로는 ‘나만 잘 믿고 복 받으면 된다’는 기복신앙으로 만연된 신자들이 적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도피성’ 경건주의자들이 많은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신자들과 교회가 다시금 우리의 선행의 빛을 통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야 할 책무(마5:16)를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약 120여 년 전에 네덜란드의 개혁파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일반은총 교리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비전이다.

주제어: 영역주권, 일반은총, 특별은총, 창조세계, 하나님의 영광

Some Notes on Abraham Kuyper's Common Grace

Park, Tae Hyeun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At the inauguration speech of Free University in 1880, Abraham Kuyper, a pioneer of 'neo-calvinism' movement, shouts 'the sphere of sovereignty' to the world. 'The sphere of sovereignty' is a theological idea that advocates again the idea of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emphasized by the 16th century Geneva Reformer John Calvin(1509-1564), who laid the base of reformed theology. Moreover, 'the sphere of sovereignty' also stresses that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should specifically be applied to all domain of people's life. It is above all intimately related to the doctrine of common grace. The doctrine of common grace is a counterpart to the doctrine of particular grace which gives salvation promised in Jesus Christ. Unfortunately nowadays many Korean churches lost her role and existence as the light and salt of the world, and greatly suffers to be trampled by people. At the same time there are many christians in the church who think 'Everything is Ok, only if I may be blessed.' In a sense it cannot be denied that there are many so called 'godly' people secluded themselves from society. In this situation we christians need to remind our responsibility to let our light shine before men, that they may see our good deeds and praise our Father in heaven (Matt. 5:16). This is the very vision that Dutch reformed theologian Abraham Kuyper wanted to achieve by promoting the doctrine of common grace around 120 years ago.

Key Words: The Sphere of Sovereignty, Common Grace, Particular Grace, the Word of Creature, the Glory of God.